당신의 작은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7

피터 드러커(월 스트리트저널 논설위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한 장(章)을 할애해 '제3부문', 즉 민간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탈자본주의 정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두 조직, 즉 사적부문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공적부문으로서의 정부뿐만 아니라 '제3부문'을 필요로 한다. 즉 자발적인 사회부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과 예측은 사회학자 미래학자, 그리고 정치이념의 측면에서도 좌파 우파 중도파 모두의 공통적인 부분이다.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혁의 길"이라는 말로 시민운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국가의 역사 문화적 토양 등에 따라 비영리, 비정부(NGO), 자원섹터, 제3섹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이나 OECD 등 국제기구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환경 분쟁 등 세계적인 이슈들을 정의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국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했다. 지뢰제조 및 사용금지협약은 NGO 운동의 성과다.

20세기 후반 이후의 한 특징은 '시민'의 전면적인 등장이다. 미국의 경우 1백만개에 가까운 비영리기관이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는 5만4천개에 이른다. "'제3섹터 혁명은 선진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강한 추세를 보여주며 세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지구촌 현상이다."(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1만여개로 잡계된다. 87년 이후 수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화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의 필요성과 역할에 동의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제3섹터 운동 87년 이전에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호견제적이었으나, 이후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펼쳐진 실직노숙자 구호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협력의 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노숙자 급식소 '아침을 여는 집' 개소식 장면.

시민운동(NGO)

"자비실천=시민운동"…국내 1만 단체 활동
환경보호·지뢰금지 등 삶의 질 개선 노력
불교계 무료급식·해외구호 등 확산 추세

"당신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에 한 이웃을."(Feel your power. It's changing our world!)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이 문구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더 이상 공허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권리회복 운동, IMF의 구제금융 이후 펼쳐진 실업자 직업훈련과 노숙자문제 해결 등 최근의 몇 가지 사례에서 경험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운동이라는 명칭이 익숙하다. 최근에는 시민운동, NGO 또는 제3섹터, 민간단체라는 말이 조금의 다른 의미를 전달하며 함께 쓰인다.

대체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으로 비영리 비정부 비정치성 비종교성 공익활동을 하는 각종 법인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을 지칭한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로 불리기도 한다. UN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으면서도 참여와 후원은 인색하다. 재정면에서 규모가 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98년 총수입은 11억7천8백만원이었다. 회비 및 수입에 의한 액수는 2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부 및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기업의 후원금이다.

이러다보니 상근자들의 생활은 말이

◇국제지뢰금지운동 한국지부 회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인지뢰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한국 미국등 120개국이 서명한 대인지뢰 사용금지조약이 발효됐다. 국제지뢰 금지운동을 이끄는 조디 윌리엄스는 반지뢰운동의 공로로 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아니다. 시민운동 7년 경력인 한 국장의 월급여는 1백14만원이다. 보너스는 년 120%지만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작년 추석과 연말에 10만원씩을 받았다. "그래도 다른 곳보다 나은 편이다"고 말한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내 환경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녹색연합의 최승국(34) 조직국장의 한달 봉급은 40만원이다. "어떻게 생활하느냐고요? 덜 버는 만큼 덜 쓰면 되죠." "월 1만원씩 내는 회원이 1만명만 된다면 시민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운동을 펼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몇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NGO강좌가 개설됐다. 한신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사회 NGO-대학 공동강좌'를 운영했다. 상아탑에 안주해왔던 대학이 수원이라는 지역사회에 직접 내려가 그 지역의 문제점과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상황을 분석해주고 함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성공회대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시민운동가 양성을 목표로 올 3월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 국내 첫 NGO전문학과인 시민사회단체학과를 개설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광주지역의 20여 단체가 참여해 '세상을 바꾸는 힘, 참여가 희망을 만듭니다'란 주제의 시민단체 박람회도 열렸다.

불교계의 시민운동 참여도 최근 들어 활발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노인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과 실직노숙자 합숙소인 아침을 여는 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구호활동으로 네팔에 아침을 여는 마음을 열어 현지인 문자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JTS는 북한돕기와 관련한 국제NGO 협의체에도 참가하고 있다.

"자비실천의 사회적 언어가 바로 시민운동"이라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하나의 사례를 들어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해 말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청 앞에 잔디공원을 조성하면서 잔디 수입비용으로 6억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조경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이모씨가 이같은 사업계획을 전해 듣고 자신이 속한 경실련 예산감시단을 통해 성남시에 토종잔디를 입히면 가격이나 품질,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성남시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시민들의 세금 3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민의 힘은 이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10월 서울서 열리는 '99 NGO 세계대회

국내외 2천여 단체서 5천명 참가
윤리·인권·환경 21세기 대안 제시

'뜻을 세우고(Inspire), 힘을 모아(Empower), 행동하자(Act)'는 슬로건을 내건 '99 서울 NGO 세계대회(대회장 조영식 경희학원장)가 10월 10~16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21세기 NGO의 역할'을 주제로 개막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 대학과 호텔 공공장소에서 4개의 소주제 및 10여개의 분과토의를 갖고 강연과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소주제는 △인류문명의 평가 △20세기의 회고-NGO 시각 △21세기의 전망-NGO 시각 △미래의 진로 등이며, 분과토의 주제는 △환경과 주거와 인간 △윤리의 가치 △사회·경제개발 △여권신장 △NGO의 활성화 △인간존중과 인권 △보건과 건강 △노인복지 △평화안보 △교육 △청소년 등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대회를 통해 세계 NGO 운동의 과거와 미래 전망, 현재 세계의 모습을 NGO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21세기의 윤리, 인권, 환경, 기술진보 등의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는 해외 1천5백개, 국내 5백여개의 NGO에서 3천~5천여명이 참가한다.

기획취재팀
정성문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